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지난해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

학생수 감소에도 계속 늘어 3년 연속 최대…교육부, 목표 달성 실패 ‘사교육 참여율’도 최고…‘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 7년 만에 최대

광주 1인당 39만 6000원·전남 27만 9000원…전국 평균보다 낮아

정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공교육 강화 의지를 재확인 가운데,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열풍이 지속되면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열을 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은 14일 '2023년 초·중·고등교육비 조사결

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결과에 교육부와 통계청이 함께 전국 3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총 27조 1000억원으로 전년(26조원)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저출산 등의 문제로 초등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전국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

년 새 7만명(1.3%)가 감소했다.

학생 수는 감소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일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찾은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의대 열풍이 이어진 점도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 2021년(23조 4000억원)→2022년(26조원)→2023년(27조 1000억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액을 2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6.9%)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감소는 커녕 4.5%

증가하면서 당초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타지역 학생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시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9만 6000원으로 전국 6개 광역시 중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산이 36만 8000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광주(39만 6000원), 대전(41만원), 인천(42만 4000원), 부산(43만 4000원), 대구(45만 9000원) 순으로 낮았다.

전남지역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 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62만 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체 학생이 아닌 사교육 참여 학생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 1000원까지 치솟는다.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은 사교육 참여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학생들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6.3%로 전국 평균(78.5%)에 못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광주에 이어 인천(77.3%), 대전(77.9%), 울산(78.2%), 부산(80.1%), 대구(80.2%), 세종(83.9%), 서울(84.8%) 순으로 낮았다.

전남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6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부, 6대 수산물 600t 푼다…366억원 투입해 할인지원

대형마트 ‘반값 특별전’ 연장

16일부터 전통시장 상품권 발급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 물량 최대 600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3~4월 다양한 수산물 할인 지원에 366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올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

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이달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수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 물량을 260t(오징어 200t, 참조기 60t) 추가하고 반값 행사 기간도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 물량 340t을 주요 마트에 공급해 이날부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 2만은 다음 달까지 전량 배정하기로 했다.

이달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품목도 전달보다 확대해 대중성어종 외에 미역,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3일 온누리상품권 발급행사도 한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발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발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오는 6월까지 매일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보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광주신보보증재단(광주신보)은 오는 18일부터 총 24억원 규모의 '2024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광산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보증 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농협은행과 서광주·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해당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광산구청에서 1년간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뒤 해당지점을 방문해 상담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광주신보는 광산구 소재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광산구 특례보증 뿐만 아니라 중신용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보는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1028개 업체에 179억 3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전남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전남신보와 이자 보전 등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3일 광주 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이강근 전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실패를 겪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 재기 의지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전남 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이 대위변제한 채무자다.

전남신보는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광주·전남신보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86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I로 에너지 절감 기능 강화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

삼성전자는 14일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 절감 기능을 강화한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는 전 모델에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와 'AI 절약 모드'를 적용해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는 모터 운전 시 관성이 용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성능을 확보했다.

스마트싱스 기반 AI 절약 모드도 강화했다.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기능으로 2단계에 걸쳐 맞춤 절전에 에너지 사용량을 실사용 기준 최대 23% 추가 절감한다.

AI 절약 모드는 1단계에서 AI 리닝을 통해 새로운 식품이 들어올 때와 내부 확인할 때를 구분해 냉장고 운전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성에를 제거한다. 2단계에서는 스마트 온도 조절 기능으로 에너지를 추가 절감한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범위에서 냉장실과 냉동실 온도를 조절한다.

특히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는 식재료를



삼성전자 모델이 AI 기술로 에너지 절감 기능을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도 탑재했다.

냉장고 선반에 놓고 빼는 식재료, 도어 쪽에 보관하는 식재료를 내부 탑재 카메라로 촬영하고 종류를 인식해 푸드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이다.

비전 AI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33종을 분류하고 매칭할 수 있다.

또 이번 냉장고 신제품은 ▲식재료 본연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미세 정온과 메탈 쿨링 ▲7단계 변온으로 식재료를 보관하는 '맛춤 보관실' ▲깨끗한 물과 얼음을 제공하는 '베버리지 센터'와 '오토 듀얼 아이스메이커' ▲가벼운 터치로 도어를 손쉽게 여는 '오토 오픈 도어' 등을 갖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기아 지식재산권 취득 8년만에 2배

지난해 연구개발비 6조5828억원

현대차와 기아의 지식재산권 취득 건수가 8년 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대차·기아가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두 기업이 지난해 국내외에서 취득하거나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7만 1553건으로, 전년(6만5065건) 대비 10.0% 증가했다.

현대차는 특허 3만7788건, 디자인 7072건을 포함한 4만4860건을, 기아는 특허 1만9797건, 디자인 6896건을 합친 2만6693건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두 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

권 3만3086건(현대차 2만4396건·기아 869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기아의 지식재산권은 2017년 4만건, 2020년 5만건, 2022년 6만건에 이어 지난해 7만건을 넘어섰다.

한편,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합산 연구개발비는 총 6조5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5조535억원) 대비 19.6% 늘어난 수치다.

현대차는 3조9736억을, 기아는 2조6091억을 연구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늘면서 매출액 대비 비중도 2.4%에서 2.5%로 소폭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고수의 투자자 모집”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14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자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 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다.

유명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불법 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어 위장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에

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18.76(+25.19)
↓ 코스닥	887.52(-2.41)
↑ 금리 (국고채 3년)	3.273(+0.022)
↑ 환율 (USD)	1317.60(+3.10)